

현지 농업인 소통 · 화합의 장

농진청, 우간다 첫 ‘농민의 날’ 행사 성료... 풍성한 수확 기쁨 나눠

지난 12일(현지시간),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는 우간다의 도호(Doho) 지역 농민협동조합 광장에는 우리나라 줄다리기, 전통 무용 마당놀이를 즐기는 현지인들로 가득 찼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가 주관한 ‘제1회 농민의 날’ 행사가 도호 농민협동조합 지도자 및 소속 농민, 지방정부 관계자, 지역공동체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격려하고 공동체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가을걷이철 마을 축제를 본떠 두 나라의 민속공연과 전통음식을 즐기며, 벼 재배 농가의 노고를 격



려하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한, 도호 농민협동조합 소속 924개 농가 가운데 이번 작기에서 최고 생산성을 기록한 상위 6개 농가를 ‘종자생산왕’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우간다 주요 쌀 생산지인 도호지역에서 ‘유카파시-39(UKAFACI-39)’ 품종 등 다수확 향

미벼 보급을 추진해 왔다. ‘유카파시-39’는 한-아프리카 식품기술협력회의체(KAFACI) 등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육성한 품종으로 생산성이 높고, 향미가 뛰어나 현지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다수확 향미벼 보급 및 실증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6일 도호 농민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민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매년 12월 12일을 ‘도호(Doho) 농민의 날’로 지정해 정례화할 계획이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 조일호 소장은 “농민들과의

협력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민협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 마을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현지에 전파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우간다 농업연구청 요나 바구마(Yona Baguma) 청장은 “도호지역에서 고품질 향미벼 종자가 생산돼 매우 기쁘다”라며 “우간다 농업 발전을 위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유은하 과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농촌공동체 문화를 우간다 농촌사회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라며 “이 행사를 통해 농가의 참여 의욕과 주인의식을 높여 사업 성공까지 이어지도록 우간다 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2일 오후 전북 완주군 본사 소통홀에서 ‘2024 윤리골든벨 퀴즈대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윤리 스타’ 누구?

전기안전공사, 골든벨 개최... 60개 사업소서 80여명 참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2일 오후 전북 완주군 본사 소통홀에서 ‘2024 윤리골든벨 퀴즈대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윤리골든벨’은 임직원의 청렴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단순 교육보다 실제 서바이벌 경연에 참여해 자연스레 공공기관 내 규정들을 알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올해에는 전국 60개 사업소에서 80여 명의 직원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날 행사와 함께 진행된 청렴운

리교육 시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가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 상세한 문제 해설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레 관련 규정들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대회에는 충북지역본부 김정연 주임이 ‘2024년 KESCO 윤리 스타’로 등극했다. 우승을 차지한 김 주임에게는 전기안전공사 사장상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 윤리경영 으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송호석 환경청장, 화학사고 대응 방재장비함 설치 점검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13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새로 설치한(도레이첨단소재(주) 옥외주차장) 화학사고 초동대응 비상 방재장비함을 점검했다.

비상 방재장비함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개인보호장구(방독면, 화학보호복 등), 방재물품(흡착포, 모래주머니 등)이 비치되어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송 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 점검과 사고 대응 역량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욱기기자

전북 경진원, ESG 진단평가 상위 7.1% 달성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윤여봉)은 신용평가사 이크레디블에서 10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ESG 진단평가에서, 7개 등급 중 2등급을 획득하며, 상위 7.1%에 해당한다는 평가 통보를 11일에 받았다.

이는 진흥원이 추진해 온 ESG경영 실천 노력이 높은 수준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ESG 진단평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에서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진단 결과는 해당 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 경영

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며, ESG 경영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진흥원은 이번 평가에서 특히 임직원 교육 투자, 가족친화 인증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ESG 경영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한 환경 부문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경영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지속가능경영 리스크가 매우 낮아 투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진흥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ESG 진단 결과는 모든 임직원이 협력하며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ESG경영 체계의 지속적 관리와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SG 경영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필수적인 경영 패러다임이며,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ESG 도입 확산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욱기기자

전북자치도 · 전북농협, 홈플러스 매장서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 확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달기 위하여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전국 홈플러스(116개)매장에서 전북농산물 대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산물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홈플러스와 함께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농산물인 딸기 및 사과, 사인머스켓 등을 판매하게 된다.

전북농협과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철 맞은 신선한 전북농산물을 대형 유통판매장 및 전북생생장터,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판촉행사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일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전북농협의 숙원이었던 통합마케팅 6천여 톤파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LX공사, ‘공간융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는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주최하는 ‘제12회 빅콘스트리트’의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데이터 활용 분야의 지정주제(공간융합) 부문 시상식을 지난 12일 진행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에서 지정주제 부문은 △공간융합 △감염병 △부동산 △연안 △스마트팜 등 5개로 LX공사는 공간융합 분야에서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한 주제를 제시했다.

지정주제(공간융합) 부문에 참가한 총 11개 팀은 ‘공간융합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geo.kr)’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단지 기준 정보, 가격 데이터, 입지 데이터’ 등을 활용해 서울지역 주택가격 하락기에도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에 대한 원인분석에 나섰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이날 수상작으로 지정주제 5개 부문에 참가한 50개 팀 중 전체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은 공간융합 부문에 지원한 ‘소셜우 미숫가루맛’ 팀의 ‘출



지정주제 5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소셜우 미숫가루맛’ 팀(오른쪽)과 시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수정 데이터

퇴근의 편의성, 자녀 교육 환경, 투자 수요의 영향력, 쾌적한 주거 환경’이, 지정주제(공간융합) 부문의 최우수상(LX사장상)에 ‘윤현민우 팀의 ‘작은 면적, 상권 규모, 인구밀도’가 선정됐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에서 생산된 공간정보 데이터를 유통하는 채널이다”면서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작품이 공간정보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